

지혜의 눈으로 나를 돌아보자



정광 스님

(문경 봉암사 태고선원장)

부처님께서 처음 인도 마갈타국에서 성도하시고 21일 동안 이 법을 생각할 때 “제법의 모든 모습은 적멸의 모습이라 말로서 이야기 할 수 없거늘 나는 설법을 하지 아니하고 바로 열반에 들었다”고 생각 하다가 방편력으로 5비구를 위해 설법해서 49년간 일대시교를 펼쳤습니다.

적멸상 그대로의 모습에 조금도 입을 열 것 없 는 것이지만 부처님이 방편설로 설하지 아니하였 다면 세상에는 부처님의 불도(佛道)를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 것이라고 원오 스님이 <백암록> 중에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성문과 교문 일체를 통틀어서 부처님이 입 열기 이전의 적멸상을 깨달아야만 부처님이 말 씀하기 이전의 본래의 모습과 뜻을 알 수 있고, 그 래야만 훌륭한 스님, 본분조사, 본분납자, 바르게 수행하는 수행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비분별 떠난자리 '본래 면목'

그렇다면 성문에서 이야기한 일구(一旬)란 어떤 말씀입니까?

설두 스님은 “위로는 부처님이 있다고 보지 않 고, 아래로는 중생이 있음을 보지 않고, 밖으로는 산하대지가 있음을 보지 않고, 안으로는 견문각지 (견고 들고 깨달아 아는 일상생활 가운데 육근육식 으로 사유하고 느낄 수 있는 것)가 있음을 보지 아 니한다. 마치 죽은 사람이 다시 처음 살아남고 같 이 좋고 나쁘고 울고 그르다는 사교를 전부 한명어 리로 툭툭 문쳐 이것을 잡아서 하나하나 쓰러다 도 한덩어리가 되어 다른 이견이 없다. 이렇게 해 서 일체 모든 일상생활에 응용하는데 조금도 차질이 없는 경지에 이른 사람이야만 부처님이 말하지 않고 그대로 열반에 들었다는 대의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님은 “일체 삼라만상 가운데서 그대로 드러난 본래의 심체의 모습(마음법, 본래면목)은 깨달은 사람만이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으로, 깨닫지 못한 경우에는 일체 시비와 분별상에서 그 분체를 이야기 하고 알려고 했는데 지금 깨닫고 보니 마치 훨훨 타는 용광로 불꽃 속에 녹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 하나의 얼음덩어리와도 같다”고 했습니다.

이런 근본의 자성자리를 설명한 것으로 마치 일 체의 모든 잡물을 다 거친 하나의 진화금 덩어리와



정광 스님은 늘 불자들에게 “미음공부와 함께 보현행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같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경전 곳곳에 ‘부처님의 광명이 두루 비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류에게 빛과 광명을 내려주시는 부 처님의 법문 중에 “일체 중생을 보니 여래의 지혜 덕상을 그대로 갖춰 있건만 망상 분별 집착으로 모 든 중생들이 증득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부처님의 49년 설법 가운데 마지막 하루동안 설하신 <열반경>에 “일체중생은 누구나 불성이 있 다”는 가장 골수가 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는 모든 인위의 평등과 자유 그리고 완전한 인 격을 갖춘 인격상을 알 수 있는 첫 말씀이 되겠습 니다. 이 말씀 이후 일체중생이 누구나 수행해서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부처님 의 원만한 광명을 현실에서 실천해 생활화할 수 있 다고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진실로 부처님의 법을 믿고 번뇌 망상

을 쫓 것 같으면 틀림없이 부처님의 불성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과거의 좋지 못한 습관 에 짓눌려 지금까지 지어온 모든 생각과 업을 쉬지 못하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걸 알고 부처님 법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번뇌 망상 쉬면 드러나는 불성

욕조 스님은 수행은 정(定)과 혜(慧)를 근본으로 삼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정과 혜는 두 가지 로 분리되느냐? 정혜는 일체이며 둘이 아닙니다.

정 속에 헤가 있고 혜 속에 정이 갖춰져 있어오. 정 이 부족하면 망상심에 요동하는 마음이 많으니 정 을 앞세워 망상심을 쉬는 데 초점을 맞춰 이야기 하고, 지혜가 생기지 않아 근원적 판단 능력이 없 으면 망상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도록 해를 먼저 이야기해서 우둔한 생각을 지워주는 쪽으로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3>



천사를 만나셨습니까

○○데야, ○○님이 젊은이들 사이에는 항상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 텔레비전을 보 고 있는데 그날 모든 방송에서 아나운서들이 일 제히 ‘천사데이’라고들 하더군요.

내 원 참, 대체 이걸 또 무슨 말이람...
투덜거리다가 달력을 보니 그날은 10월 4일 이었습니다. 1004이니까 ‘천사’라는 말이지요.

주위에 눈을 돌려 나보다 딱한 사정을 안고 살 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천사의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가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 이벤트성 날들 보다는 한결 그 취지가 건강하게 느껴집니다. 천 사(天使)는 말 그대로 하늘의 심부름꾼입니다. 타종교에서는 착한 천사와 악한 천사가 있는데 착한 천사는 신을 찬미하고 신에게 봉사하며 사 람을 지켜준다고 합니다. 사람이 선행을 하도록 권하고 악을 피하게 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것 입니다. 그리고 악한 천사는 사탄이지요.

부처님도 천사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천사 의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건 누구의 심부름꾼 도 아니요, 당사자인 인간과 분리되어 있는 존 재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착하고 악하다 는 그런 구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열라대왕의 심문은 이어집니다. “너는 세상 남자와 여자들이 나이 들어 머리가 희고 이가 빠지며 등이 굽어 지팡이를 의지 해야만 겨우 거동할 수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 었는가? 그것이 두 번째 천사였다. 그리고 너는 세상의 남자나 여자들이 큰 병이 나서 앉지도 힘들고 일어선도 괴로웠으며, 죽을 날이 가까워 두려움이 그를 옥죄어 오지만 병을 고쳐줄 의사를 만나지 못해 고통 받는 것을 본 적이 없었는가? 그것이 세 번째 천사였다.

너는 세상을 살아오면서 사람이 죽으면 살이 허물어지고 뼈가 부서지고 한 줄기 연기와 함께 재로 변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는가? 그 죽음이 바로 네 번째 천사였다. 너는 세상을 살면서 나쁜 짓을 저지른 죄인이 끔찍한 형벌을 받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그것이 바로 다섯 번째 천사였다. 너는 네 자신도 그처럼 늙어가고 병 들고 죽어가며 중죄를 지으면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상상을 해보지 못하였던 말인가? 그렇지 않고서 어찌 그리도 착한 일을 하려 는 마음을 내지 않고 방심하고 쾌락에 빠져 일 생을 보낼 수 있었는가?”(중아한 ‘천사경’)

이런 부처님 말씀을 접하고 나서 주변을 둘러 보니 과연 세상에는 천사로 가득합니다. 태어남

세상의 덧없음은 내 몸에서 벌어지는 법칙 생로병사와 무관한 생명체 어디에 있을까

어떤 사람이 죽어서 열라대왕 앞에 끌려갔습 니다. 이 사람은 살아생전 착한 일은 거의 한 적이 없 어 앞으로 받게 될 과보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열라대왕이 그에게 묻습니다.

“그대가 세상을 살면서 그대 앞에 천사가 나 타난 적이 있었다. 그대는 천사를 보았는가?”
“아니요. 저는 천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우리가 요즘 생각하듯이 하 안 날개를 단 곱디고운 아기천사만을 상상하며 이렇게 대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에게 열라대왕이 이렇게 꾸짖습니다.

“너는 세상 사람이 갖난이기를 왜 깨닫고 보아 써여 툭 오줌 속에 누워 제 스스로 몸을 가누지 도 말할 줄도 모르고, 똬가 좋고 똬가 나쁘지 조 차 모르던 모습을 본 적이 없던 말인가?”
“그런 일이라면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천사이다. 너는 네 자신 도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은 있 는냐? 사람은 죽은 뒤에는 자기가 지난 세상에 한 일을 따라서 태어나는 것이다. 비록 그것을 보지 못했다 해도 착한 일을 행해 스스로 그 몸 과 입과 뜻을 단정히 했어야 했거늘 어찌하여 방 심하고 쾌락에 빠져 일생을 자냈더라 말이나?”

이러는 천사, 늙음이라는 천사, 병이라는 천사, 죽음이라는 천사, 형벌이라는 천사... 아마 이 런 천사들의 모습을 보고 가장 큰 충격을 받은 분은 석가모니 부처님일 것입니다. 왕위도 가족 도 버리고 황황히 출가를 하였으니까요.

생로병사라는 천사와 무관한 생명체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가까운 친척에서부터 이웃들, 그리고 저 멀리 떨어진 대륙에서 벌어지는 일들 과 사람들 하나하나에, 심지어는 내 몸에서조차 이 천사는 깃들어 있습니다. 세상이 참 덧없고, 그 덧없음은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돌림없이 벌어지는 법칙임을 뼈저리게 느 끼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토록 악다구 니를 쓰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천사의 모습을 보고도 느끼는 것이 없어서 날마다 악업만을 일 삼는다면 나중에 쓰디쓴 과보가 돌아올 때 그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 오직 제 스스로 그것을 받아야 한다고 경에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65일 중 어찌 10월 4일 하루만 천사의 날이라 하겠습니까? 태어나서 마지막 호흡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 천사의 날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 이마령(통국경원 역경위원)

역학 전문 포털 사이트

사주박사

www.drsoju.com

전문 역학인을 양성이기 위한 온라인 아카데미 프로 사주박사가 문을 활짝 열고 역학 고수를 꿈꾸는 여러분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프로 사주박사(www.drsoju.com)는...**
 - * 프로 사주박사는 일반인들이 사주를 보는 곳이 아닙니다.
 - * 프로 사주박사는 역학에 대해 수준 높고 전문적인 공부를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각 분야의 권위 있는 선생님들이 체계적인 강의와 토론을 병행하는 역학 전문 포털 사이트입니다.
- 프로 사주박사가 회원님들께 드리는 파격적인 특전 - '사주박사 6.0' 사용**
 - * 프로 사주박사의 회원(월 회비 36,000원)이 되면 지난 10여 년 동안 전문 역학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역학 전문 프로그램 '사주박사 6.0'을 사용할 수 있는 특전을 누리게 됩니다.
 - * 역학 전문가용 최신 프로그램 '사주박사 6.0'은 현재 시중에서 볼 수 있는 여러 역학 프로그램 중 오류를 완벽하게 수정, 보완한 최신 프로그램으로 개별 구입 시 가격이 150만원이나 하는 고가 프로그램입니다.
 - * 프로 사주박사 회원은 '사주박사 6.0' 프로그램이 수시 업그레이드 될 때도 제한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님의 개인 홈페이지를 무료로 만들어 관리해드립니다.**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역학에 자신이 붙으면 개인 홈페이지 하나쯤 갖고 싶은 게 당연합니다. 프로 사주박사에서는 홈페이지를 만들고자 하는 회원님을 위해 저렴한비용 (초기개설비 6만원)으로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어 드리고 정성껏 관리해 드립니다.

서울시 종로구 윤니동 98-5 삼현빌딩 3층 선도텔레콤 주식회사
Tel. 02)742-3025~8 Fax. 02)742-3023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양”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형준비에 지친 수행자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자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리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이면 증후, 나병, 알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경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 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이 되는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병중,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지행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했다.
-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貴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奉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시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
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 (02) 713-7798, 701-4716

- 별도상당(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당(심마리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국검필(분석 51160-150)
심마당 長腦山蔘

산삼장뇌란?
산삼은 원종, 지종, 인종, 창비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제조하는 산물이 될 것입니다.



정광 스님은 삼성적적(세)하면서도 적적성성(성)한 정혜성수를 강조한다. 10월2일 동화사 담선대법회에서 스님의 법문을 경청하는 사부대중.

일깨워줍니다. 그러나 이는 부처님의 정과 혜를 온전히 일체 중생들에게 갖춰주기 위한 방편으로 말씀하신 것이니 하나에 기준하고 하나에 중심점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은 대적광삼매 속에서 항상 지혜덕상이 갖춰진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지(止)는 항상 적멸한 것, 관(觀)은 적멸한 가운데 항상 비추는 것으로 지와 관이 둘 아닌 것을 법성이라고 합니다. 지와 관, 정과 혜, 적(寂)과 조(照), 적광이 함께 하지 않으면 부처님의 지혜덕상이 갖춰지지 않고 불성이 열리지 않습니다.

정에 헤가 있고 혜에 정이 있네

그래서 수행하는데는 정과 혜를 갖추고 지와 관이 둘 아닌 공부를 해서 일체 모든 번뇌와 시비심을 소멸해버리고 그런 문제에 고답리지 않는 적광삼매를 수행하지 않게 되면 온 대지와 유정, 무정이 전부 몽처 그대로 순수한 금명어리가 되지 못하고 두 가지 이견으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불제자가 수행하여 경지에 들어가지 않게 되면 이런 사실을 수용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에 치우치지 말고 부처님이 깨달은 경지를 우리가 실험수행해서 깨달아야만이 부처님과 조사 스님들의 격외(格外) 선지를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말도 이해하기 어렵고 이심전심한 부처님의 선법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에 따라가고 또 환경에 따라가면서 자기의 이견과 남의 이견에 따라서 이것저것을 주장하는 시비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런 근본적인 내용을 알아야 선을 참구할 수 있고, 바른 종교인으로서 자기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선의 이야기는 옛날과 달라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고 선을 뒤계 되면 뒤는 사람이 스스로 잘못 이해하게 되고 바른 길로 공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간화선 수행에 들어가기 전에 옛 스님들이 공부하면서 깨달으시게 된 내용을 통해 간화선 성립까지의 선사상과 수행을 살펴봐야 합니다.

육조 스님이 처음 깨달은 내용을 확실히 안다면 깨달음이란 무엇을 기준으로 어디에 지점을 두고 수행해서 실질적으로 깨달느냐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후대 스님들이 육조 스님으로부터 어떤 법을 깨달아 실질적으로 수용할 수 있었나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도 똑같은 경로를 밟는다면 수행에

매일 14시간 가행정진 산문밖 출입 않기로 유명

정광 스님은 조계종 종립선원단체, 가을 반결제까지 한 활동도 쉬지 않는 사시사철 안거의 기풍을 이어 오고 있는 봉암사 태고선원에서 정광 스님은 환간이 넓은 세수에도 20~30대의 젊은 수좌들과 하루 14시간 가행정진하며 구참수좌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다.

스님은 젊은 수좌들 사이에서 일상생활에 항상 숭선수범하는 분으로 정평이 나왔다. 율력이 있는 날이면 항상 가장 먼저 나와 팔을 걷어 붙이고, 정진시간도 철저히 엄수하는 스님은 '순수 그자체'라는 말로 대변되고 있다.

그동안 스님은 좀처럼 산문 바깥 출입을 않기로 유명했다. 그러나 이번에 스님은 특별한 외출을 했다. 10월 2일 열린 동화사 담선 대법회에 논주로 나선 것이다. 스님은 '간화선을 제대로 알려 모든 이들이 생활선을 무도록 한다는 담선대법회의 취지가 고맙고, 간화선이 일상 생활속의 선으로 탈바꿈되도록 제방선원에서 정진하는 모든 분들이 나오는 특별한 자리여서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때문에 이번이 스님이 준비한 발제문은 간화선 수행을 하는 이들에게 의지처가 될 교재모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정성히 가득 담겨있다.

정광 스님은 요즘 유행하는 웰빙, 요가, 명상이라는 용어에 대해 "마음이 고요하고 청정하게 되면 거기에 은갖 만법과 묘용이 다 갖춰지

니까 부질없이 깨닫는 것에 애쓸 필요가 없이 청정한 경계만 늘 지니고 수용하면 그대로가 부처님 경지라고 하는 내용의 선 공부는 올바른지 못하다'고 단호히 말했다. 이런 수행은 삼계를 벗어나 해탈도를 얻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스님은 간화선을 대중들에게 체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또 동참하겠느냐는 질문에 흔쾌히 "물론입니다. 누구든지 나서 아합니다. 이 세상엔 동체대비 보현행원이 가득 차야 하는 것이지요"라며 미소를 지었다.

1942년 경남 창원에서 출생한 정광 스님은 20대에 <금강경>과 <인제록>을 읽고 즐거움 결심했다. 61년 왕계사에서 대월 스님을 은사로 득도. 이후 약 40년간 제방선원에서 정진해 왔으며 선학을 겸비한 선승으로 알려져 있다.

정광 스님이 봉암사를 오가며 정진한 것은 30여년전, 본격적으로 주석하게 된 것은 20여년전부터다. 스님은 해병대 제대이후 3년동안 잠 안자고 공부하기 시작한 후 <인제록>의 활발발한 무위진인의 경계에 대해 점차 확신을 얻기 시작했으며, 어느 순간 확연히 그 경지를 알게 되어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신있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그동안 '봉암사 지증대사 적조탑비(보물 제138호)' 등 선종사 관련 비문들을 번역하며, 한국 선맥을 되살려야 한다는 노력을 남모르게 진행하기도 했다.

들고 수행한다면 그 순간부터 나의 사고와 지금까지 지녔던 결단하지 못한 모든 문제들이 일시에 해결되고, 미래 세계는 즐겁고 윙기있는 세계로 전환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정리·배치선 기자 jsun@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po@buddhapia.com



법현 스님의 스님이아기

원법 스님 (下)

원법 스님이 대전 보은정사를 창건할 때의 일이다. 보은정사는 처음에 보문산 중턱에 자리했는데 1970년대 말 박정희 대통령이 무허가 암자를 일체 정리할 때 자진 철거했다. 명분이야 여러 가지를 내걸었지만 시국사건 연루자 등이 숨을 공간을 없애자는 속셈이어서 엉뚱하게도 암자를 운영하는 스님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원법 스님은 적법하게 지었기에 문제가 없었고 당시 공무원들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만 스스로 의심의 티끌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철거한 것이다. 사제들과 신도들이 소식을 듣고 격정을 많이 하여 눈물까지 흘리며 철거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철거를 막고, 주지스님은 나서서 그들을 막는 차마 보기 힘든 일이 한동안



그림·문병성

안 일어났다. 신도들이 스님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사물을 수호하려고 한 때는 이유가 있었다.

원법 스님이 해인사에서 출가하여 해성 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정진할 때 사찰은 어려웠지만 공부에 대한 스님들 열의는 대단했다.

하루 세 끼를 제대로 먹지 못해서 물을 마시고 견디며, 봄이면 산에 물이 오르기를 기다려 송겨를 벗겨 먹는 등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부처님 정법을 얻기까지하는 한시도 게으를 수 없다는 각오로 아찔져오르는 참선을, 낮에는 염불 정진을 하였다.

그러던 해인사 시절을 마감하고 도심포교를 하기 위해 대전으로 와서 보은정사를 창건하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이 시작됐다. 창건불사비용이 전혀 없었던 데다가 처음으로 와본 도시이기 에 신도 조직도 하나 없었다. 그러나 말뚝신심 하나로 목탁을 들고 탁발을 나갔다. 해인사에서 낮에는 염불 정진하던 그 모습 그대로 관세음보살님을 지성으로 부르며 집집마다 찾아다녔다. 하루종일 걸어 다니다가 지치면 아무 곳이나 바람을 풀어서 나뭇길과 물마시고 짐을 쳤했다. 날이 새면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예불을 모시고 또 탁발행차를 나섰다. 당시는 탁발승을 사이비라

고 이상하게 보는 때여서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렇게 3년 동안을 탁발해서 마련한 불사금으로 겨우 도량을 이루했는데, 이제 막 자리를 잡아서 법회할만 하니가 철거한다고 하니 신도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신도들은 탁발까지 하는 스님의 정성에 감동해서 하나 둘 오기 시작한 그야말로 개미떼같은 불자들이었다. 그러나 원법 스님의 결의는 단호했다. 소크라테스가 악법에 의해 독배를 마시고 갔듯이 자신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산 위 도량을 철거하고 나니 더 이상 산에서는 힘들겠다 싶어서 산 밑으로 내려와 천막을 치고 법당을 꾸렸다. 어려운 시절인데도 어려운 사람이신도들이 그렇게 많이 올 것 같지도 않고 우리나라 불교가 자꾸 늙어가는 것 같은 안타까움에서 청소년법회부터 시작했다.

원법 스님은 법당을 세우고 나서도 법회와 불공을 하는 나머지 시간에는 탁발을 했다. 탁발을 하면 당시는 쌀 한 두 뿔밖에 시냇물의 전부였

탁발해 도량 세우고 청소년 법회 열어 포교

데 가끔 사탕이나 과자를 받게되면 돈보다도 더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일요일에 절에 오는 학생들에게 나눠주면 그 어떤 것보다도 호소력이 있는 법문이 바로 과자요 사탕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과자 먹고 사탕 먹고 자라난 신도들과 그들의 부모가 오늘날의 보은정사를 있게한 원력보살들이다.

신도들도 원법 스님을 닮아서인지 교도소법회나 소년원법회를 할라치면 주위에 알려져 법회에 필요한 물품들을 권선하곤 한다. 참여자들은 보시의 공덕을 얻게 하고 법회를 듣는 원생들에게는 진리와 함께하는 물질의 기쁨도 함께 해 준다. 보은정사에 서예반과 다도반까지 결성해 열심히 전법하는데 대전이나 충남 지역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봉사활동을 요청하면 뿌리치는 법이 없다.

스님은 명필이라 큰 사찰과 공공기관 현판 등에서 스님글씨를 가끔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곳 이 과산 다보수련원과 월원에 있는 월정리OP 석 등이다. 다보수련원은 대한불교진흥원에서 수련원을 필요로 하는 불교계의 소망을 이룩하기 위해 지은 대형 수련원으로 서도권 이사장의 청으로 원법 스님이 상량문을 썼다. 월정리OP에는 석등을 세우면서 주관처에서 '남북통일석등'이라고 써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원법 스님은 언젠가 통일이 올 텐데 굳이 남북을 갈라놓아야겠느냐면서 '평화통일석등'이라고 글씨를 쓰겠다고 우겨서 지금도 '할마는 달리고 싶다'라 쓰인 간판 옆에 하나씩 조국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서 있다. ■ 권익산 자문임 상임법사

불교성지순례 (주)실크로드여행사

17년간 불자님들과 함께합니다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앞 (02)720-9600

인도, 네팔 성지순례(20일간)에 동참하실 스님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스님만을 위한 성지순례를 최상의 조건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인도 불교 8대성지와 산치대탑, 아잔타석굴, 엘로라석굴, 카주라호, 포카라 등 인도와 네팔의 성지 및 주요 유적지를 상세한 설명과 함께 여유롭게 순례하는 최상의 일정입니다.

- 출발일 : 12월 25일 동참금 297만원**
 ※ 20명 한정 (현재 8분) 안내: 이상일 이사 (64여회 인도순례)
 ● 일 정 : 몰바이-엘로라-아잔타-산치대탑-카주라호-아그라-심카시아-코삼비-바라나시-보드기아-라즈기르(영취산)-파트나-바이살리-쿠시나가라-기원정사-룸비니-포카라-카투만나
- 인도, 네팔 첫지순례 15일 (출발일 : 1월 13일) 257만원**
 사부대중 누구나 동참 가능한 인도 성지순례 15일은 인도와 네팔의 주요 불교성지를 순례하는 정통적인 순례 일정입니다.
 ● 일 정 : 몰바이-엘로라-아잔타-산치대탑-아그라-바라나시-보드기아-라즈기르(영취산)-파트나-바이살리-쿠시나가라-기원정사-룸비니-포카라-카투만나
- 인도 첫지순례 10일 (출발일 : 12월 28일, 1월 14일) 198만원**
 성지순례 10일은 부처님의 자취가 어린 부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순례하는 일정입니다.
 ● 일 정 : 델리-기원정사-룸비니-쿠시나가라-바이살리-파트나-라즈기르(영취산)-보드기아-바라나시-아그라-델리
- 미얀마 첫지순례 6일 (출발일 : 12월 9일) 138만원**
 불탑의 나라 미얀마를 대한항공 전세기 편으로 순례합니다.
 ● 일 정 : 인천-양곤-바간-만달레이-양곤-인천

칠포 대원사 성지순례

신비의 상징, 길상의 상징, 불법을 수호하는 신 용, 인도에 사는 용 종족들이 숭배하는 신화의 용 대한민국 최초로 거대한 용을 조성 하였습니다. 용의 배속에 천불전 일천불 부처님이 타고 계시며 용의 몸통속에 7만 7천 부처님을 봉안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최초 최대의 용이 탄생하였습니다.

◆ 이곳방생지 - 칠포해수욕장. 보경사는 15분거리 **용의크기 : 높이 20미터, 높이 2.5미터, 길이 108미터**

◆ **봉안 낙성 준공식 및 용왕대제 : 2004년 10월 23일(음 9월 10일)**

사바세계 일체중생은 신비의 용을 천견 함으로써 번뇌 망상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일체중생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관세음보살님 42수 진언의 소원 성취를 증득하실 길정지 바로 **칠포 대원사 성지순례**이옵니다. 전망은 푸른바다와 들판, 뒤로 수려한 명산이 병풍처럼 둘러 싸인 곳. 이곳이 바로 성지순례의 공덕, 길지라 하옵니다.... (공공구세요)

문화관광부 사단법인 제141호 한불중02-44호 동계

대한불교 (禪)선종 총 본산 칠포 대원사

전화 : 054-261-7777 / 팩스 : 054-261-6119